22년 한결같이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

광주신세계백화점 22주년

'호남 물산전' 지역경제 도움
'사랑의 S-BOX' 사회공헌
전시회 등 문화활동도 앞장

광주신세계가 출범 22주년을 맞아 더욱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공헌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신세계 전경.

#1. 광주신세계 밀레 김근형(43) 점장은 명절이 되면 광주 지역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사회시설을 돌며 옷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개점 기념행사에서 받은 상금에 사비를 보태 전남대화순병원에 소아암 환우를 돕는 등 광주신세계를 통해 이룬 '꿈'을 이제는 지역과 나누고 있다.

#2. 광주신세계가 한 해 3차례가량 진행하는 '호남 물산전' 을 찾은 소비자들은 호남에서 생산된 깨끗한 농수산물을 한 자리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산지직거래를 통해 평상시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수산물 총 35여종의 신선한 상품을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95년 4월 10일 광주현지법인으로 출발한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임훈)가 올해 22번째 생일을 맞는다.

임훈 대표이사는 "신세계백화점의 첫 지방점포이자 그룹 최초의 지역 현지법인 기업으로 출발한 광주신세계가 지역 대표 유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마케팅과 최신 트렌드의 쇼핑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안해 지역민과 고객, 직원들 모두에게 사랑 받는 광주신세계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신세계는 현지법인의 목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훈 대표이사

지난 1월 신년을 맞이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S-BOX'를 광주시교육청, 서구청 그리고 서구 관내 4개 복지관(금호,쌍촌,무진,시영)과 연계해 결손아동 가정 및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하고 협약식도 가졌다.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매년 고등학생 130명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외에도 서구장학재단, 상록수장학재단 등을 통해서도 추천을 받는 등 전문가 추천 제도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남도 사랑 캠페인'은 국악명인초청 공연, 전통 사물놀이, 지역작가 전시 등 콘텐츠를 다양화해 올해 더욱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미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갤러리에서는 20년 이상 경력의 큐레이터가 직접 전시와 함께 도슨트 서비스를 통해 갤러리가 전시만 하는 공간이 아닌 고객 및 작가와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한 상무1동 안전부스 설치 및 벽화조성 사업은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줘 지역 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백화점을 찾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늘리고 있다. 1층 광장은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며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성공적인 전시로 꼽혔던 여름방학 '주라기 탐험전'과 봄 '튤립 정원' '가을 국화 정원'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올해에도 1층 광장은 컬쳐 스퀘어라 이름에 걸맞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로봇을 테마로 한 특별 전시도 기획하고 있다.

임훈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임직원 95% 이상이 광주·전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70%가 여성인 여성친화 제도를 통해 임산부를 위한 탄력근로제, 복직사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 등 다양한 여성친화적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항상 책임지는 광주현지기업으로서 광주광역시의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해양조 매실 가공식품 개발 나섰다

日나카다식품 방문 벤치마킹…기술이전 등 합의

지난 10일 일본 와카야마현 나카다식품을 방문한 임지선대표(오른쪽)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보해 제공〉

보해양조가 해남 매실농원에서 생산되는 매실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와 임직원들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매실가공 및 제품으로 유명한 와카야마현에 있는 나카다 식품을 방문했다. 이번 산업시찰을 토대로 해남 매실농원에서 생산되는 매실의 부가가치 증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카다 식품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관련 기술 이전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나카다 식품은 매실절임과 매실주 등 매실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며 일본 내 매실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현재 보해 등 국내 매실가공업체가 생산하는 매실 가공식품 대부분은 매실장아찌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 나카다 식품은 소금을 이용한 매실절임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소금으로 절인 매실절임은 1년 이상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반면 설탕으로 절인 매실장아찌는 보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유통 및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일본은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매실절임을 개발해 매실시장 자체를 크게 키웠는데 한국은 매실주, 장아찌를 만드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해남 매실농원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매실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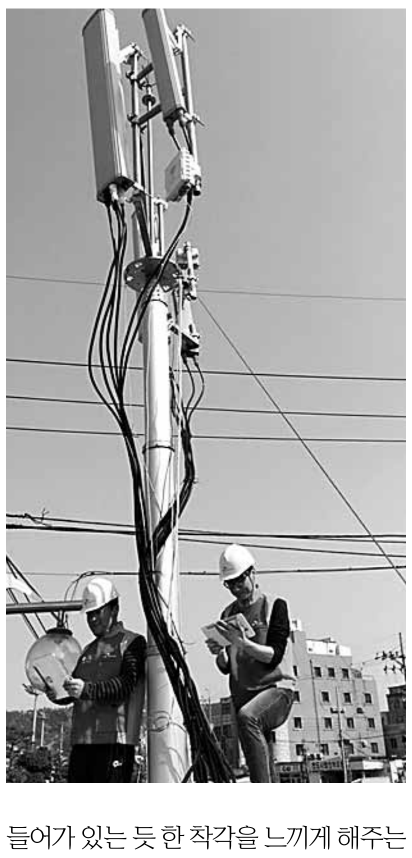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8.61 (+19.70)	↓ 금리 (국고채 3년) 1.67% (-0.01)
↑ 코스닥 623.87 (+2.42)	↓ 환율 (USD) 1129.70원 (-11.70)

SK텔레콤 완도해조류박람회 통신관리 만전

기지국 용량·와이파이 증설…'찾아가는 행복 서비스' 운영



SK텔레콤은 완도 국제해조박람회 등 지역 축제 행사장을 찾는 고객들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지국 용량과 와이파이 증설, 이동 기지국 배치, 특별 소통 상황실 운영, 고객 행복 서비스 부스 설치 등 이동통신 서비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완도 국제해조박람회에는 60여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트래픽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 용량 증설과 점검을 완료했다. 또 박람회장 인근을 비롯해 완도를 찾는 고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추가 용량 확보 등 보강 작업도 시행하고 있다. 〈사진〉

이와함께 박람회 기간 중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 서비스'도 운영한다. SK텔레콤 이용자는 이곳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체험 ▲단말 단기 임대 ▲요금제 컨설팅 ▲보조 배터리 무상 대여 등 지점 서비스 ▲휴대폰 A/S ▲휴대폰 클리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영석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장은 "SK텔레콤 서비스 중에서 최신폰을 활용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사람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 디바이스 누구(NUGU)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컴퓨터가 만들어낸 환경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 한 착각을 느끼게 해주는 경험과 더불어 음악감상, 스마트홈 제어, 알람, 쇼핑 등 생활에 더해주는 편리함이 어떤 모습일까를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한은 올 경제성장률 2.6%로 상향 조정

1월 전망치서 0.1%P 올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한국은행은 13일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상반기 2.6%, 하반기 2.7%)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2.5%에서 0.1% 포인트(p) 올린 것이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기는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2014년 당시에는 국민계정 체계와 기준년 개편을 이유로 성장률을 올려잡았다.

이 때문에 경제 회복세를 근거로 전망치를 올리기는 사실상 2013년 7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한은 전망치는 정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고 한국경제연구원(2.5%), 한국개발연구원(2.4%), 현대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말 전망치를 2.1%에서 0.4% 포인트나 올린 데 이어 한은의 경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내수가 회복 기미를 보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실물경제는 최근 성장세가 다소 확대됐다"며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수출과 투자 호조에 힘입어 작년 4분기에 비해 상당 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저성장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를 기록했지만 2015년과 작년에는 각각 2.8%에 그쳤다. /연합뉴스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 010-7384-7800 010-6670-98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융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융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깔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①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송탄 터미널 5분
총 1,700평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②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물건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하점 옆
광주 가장 큰평수,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룸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

▣ 광산구 하남 (7층중 4층 상가)
토 36평, 건 95평
하남 홈플러스 인근, 6차선 대로변 접
▶감정가 7억7천 → 최저가 3억4천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룸 총 33개
월수익 1,000만예상 / 운천역 1분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1층)
토 21평, 건 34평
상무역 1분, 상무지구 최고 중심가
▶감정가 16억 → 최저가 7억2천